

계승범. 조선의 18세기와 탈중화 문제

- 18세기의 조선역사발전 평가문제. 북벌(정치적 탈중화)과 북학 및 조선중화주의(문화적탈중화)의 주체적 성격 한계 지적.

<정치적 탈중화>

- 북벌론의 관념성과 국내적 성격
 - 8년 동안의 인질 생활. 북벌 믿지 않았을 것. 청에 우호적이던 소현세자의 실각을 보고 국내용으로 북벌론이라는 명분쌓기 시작.
- 실제 천자의 상대화 진행. 조천록->연행록, 陪臣이라는 단어사용 중단.
- 그러나 조선건국이후 계속된 한족중화로의 귀속이라는 의미이지 주체적인 것이 아님
 - 이황이이의 사대관->임진왜란 의병->척화->북벌론->조선중화주의

조헌 "...생각건대, 빨리 오랑캐 사신의 목을 베어 나는 듯 달려가 天朝에 아뢰고, 적의 사지를 찢어서 琉球와 여러 나라에 나누어 보내 온 천하로 하여금 함께 분노하게 함으로써..."

광해군 시기 비변사 당상 "차라리 전하에게 죄를 범할지언정 천자에게는 죄를 범할 수 없다"

윤행임(尹行愆) "나는 명나라 유민이다. 3월19일이면 劊을 어루만지며 슬피 울었다. 앞으로는 이(崇禎)琴을 두드리며 울분을 터뜨리겠다(『碩齋稿』 12, 「崇禎琴記」)."

<조선중화와 북학>

- 조선중화와 관련된 담론들 모두 한족중화의 권위에 의존.
- 일본과 비교- 니시카와 죠켄(西川如見, 1648~1724) 세계를 5大洲로. 지리인식을 통해 중국과 일본을 모두 객관적으로 이해
- 북학 및 실학에서 중국의 객관화 움직임은 그 자체로 화이론을 탈피못하고 사회의 주류도 아니었음. 북학의 도전적 성격을 인정하면서 그 화이론, 중화유제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현재 학계의 대세. 중국에서 배우자는 것은 여전히 중화적.
- 호질, 실용 등의 비판은 개인문집이므로 가능 공적 담론이 아님. 국가차원의 북학 및 탈중화 정책 부재.

김영민. 조선중화주의의 (이론적) 재검토

- 계승범 우경섭으로 대표되는 조선중화주의 논쟁에 관한 이론적 제고.
-계승범으로 대표되는 조선중화주의 비판론- 근대적 사관에 입각해 조선중화주의의 관념성, 타율성, 정체성 강조.
-우경섭으로 대표되는 조선중화주의론- 조선중화주의를 고매한 이상을 실천하고자한 주체적인 도덕론자들의 가치관으로 이해.
- 중화의 픽션성(정치적 상징체계를 의미하는 듯)을 강조하는 제 3의 입장 제시.

<종족, 지리, 문화 등의 본질주의적 중화이해 비판>

- 조선후기 중화주의는 멸망한 대상에 대한 의존이라는 면에서, 명대의 사대규범과는 다를 지적. 허태용의 중화회복의식과, 중화계승의식 구분. 18세기부터 종족성이 탈각되기 시작.
- 계승범의 주장과 달리 종족성, 국적성이 중화와 분리되었던 경우는 흔함. 이성규, 분열 및 정복왕조 시기가 1/3.
- 또한 우경섭, 계승범 모두 문화본질주의 시각에서 문화를 하나의 이론 및 구성요소로 환원해서 이해하려는 시각. 문화본질주의. 중화는 유교문화의 그 어떤 본질적 요소도 지시하지 않음.

<중화라는 픽션>

- “확고히 지칭할 수 있는 유교문화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정통성에 기반하고자 하는 계보적 사유 일반에서 흔히 발견될 수 있는 일종의 플레이스 홀더(place-holder)로 서의 픽션(fiction)이다: “중화가 중화가 되는 이유는 못 성현들이 이어서 내려오기 때문이다.””

=>어떤 특수한 유교문화의 내용(명나라의 문화도 아님)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해석과 전유를 가능케 하는 상징체계를 지칭. 조선후기의 창의적 중화해석도 이 해석과 전유의 결과로 이해.

- 조선중화론을 계보적 사유에 근거한 정치적 정당성 확보의 문제로 해석. 계승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상징체계의 구현문제로 조선중화론과 관련된 전례들을 이해.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보편적 현상. 은주교체기의 천명사상의 등장 역시 혈연 및 종족이 이 아닌 원칙에

근거한 정치적 계승을 합리화하기 위한 원칙.

- 명청교체기의 충격은 정치적 정당성이 한쪽에게만 귀속된다는 생각이 깨어지면서 나타난 이례적인 현상. 따라서 필요한 것은 사라진 명나라와 남은 조선을 연결해줄 픽션. 이것이 조선 중화론의 요체다.
- “생각하는 바는 명나라 이후에 중국이 없다는 것에 있을 뿐입니다. 저는 그들이 명나라를 생각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중국을 생각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는 것일 뿐입니다.” 중국을 명나라라는 특정왕조와 분리해서 생각.

<조선중화주의 평가문제>

- 근대 혹은 탈근대성의 입장에서 조선중화주의를 평가하기보다는 당대적 맥락의 합리성을 복원할 필요. 즉 당대의 국제정치현실과 조선중화주의의 관계 제고 필요.
- 당시의 국제정치현실에서 나름의 합리적 선택으로 조선중화주의를 이해. 순수한 도덕적 행위자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는 행위자도 아닌, 규범적 한계속에서 이해를 추구하는 합리적 행위자도 조선지배층이해. 만의 IMEP모델을 활용하여 조선이 상대적으로 많이 보유했던 이데올로기적 파위를 행사한 것으로 조선중화주의 이해.(임란호란 당시 군사력 결핍. 세도정치를 전후한 중앙-지방의 괴리, 일본 등 인접국과 비교하여 경제적 발전의 부진).

<중화주의 해석의 방법론적 문제들>

- 인간을 이해관계와 우호적인 자기인식을 모두 추구하는 존재로 이해. 당대의 지배적인 사상 체계 속에서 어떻게 이해관계를 추구했는지를 모두 살펴야 함.
- 중화이데올로기의 계층성 문제
 - 조선, 명 양쪽 공히 중화는 특정계층의 이해관계에 봉사하는 이데올로기였을 수 있음. 동주이용희도 사대를 지배층의 이익에 봉사하는 왕조간의 상호보장체제로 이해한 바 있음.
 - 일원적인 중화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는 갈조광등의 중국학자들에게 효과적인 반론제기 가능.

<질문들>

- 조선내의 국제정치사상 변화를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제도사 및 개념사적 변환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조선의 자신의 정당성을 중원왕조와 분리해서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같은 예치가 작동하더라도 명-조선 관계와 청-조선 관계의 사상적 차원에서 질적 차이가 존재함. 이 차이를 어떻게 개념화하는가?
- 마찬가지로 북학파들의 사대관념과 명대 조선의 사대관념의 차이도 이론적 규명이 필요해보임. 청을 단순히 거부하지도 그렇다고 섬김의 대상으로 보지도 않음. 전략적 사대와 규범적 사대의 제 3의 사대로 개념화 가능한가?
- 왕조국가단위를 넘어서는 중화라는 상징체계와 관련된 전례들을 국제정치학적으로 무엇이라 부르나? 레짐? 제국? 왕조연합? 동아시아국제관계사와 현대국제정치이론을 연결하고자 할 때 제기될 문제. 결국 비교국제질서의 문제가 다시 제기될 것.
- 국가중심적 분석과 계층성을 강조한 역사사회학적 분석의 관계. 중화는 중국과 조선의 일부 세도가문과 士계층의 이해해 봉사하는 이데올로기였나? 정통과 도통의 병립을 국제정치학적으로 연구한다면? 미래의 연구주제?
- 규범적으로 문화적 다원성이 폭넓게 인정받는 질서로 변화한 것인가?